

여수시, 동문로 일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2024년까지 20억 원 투입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여수시 동문로 일원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여수시 동문로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동문로 일원 1km 구간에 총 사업비 20억 원(도비 10, 시비 10)을 투입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수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진남관, 새로운 해양문화 공간인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특화거리로 연결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명품

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문로 특화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모티브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된다.
또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산뜻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상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양공원과 이순신광장에 이어 여수의 새로운 볼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



디자인단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에 착수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착수 중마동 일원 내년까지 70억 투입

광양시는 산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생활권으로 유입·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이전과 달리 국비 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7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마동 백운로와 청암로 녹지대 주변을 대상으로 1차년도 40억 원을 투입해 4ha 면적을 조성하며, 광양항이 있는 항만대로 녹지대 주변 3ha 면적에 30억 원을 투입해 2차년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중마동 지역은 광양시 인구의 약 40%가 거주하는 주요 생활권이지만 상업·문화·교통 등 도시의 중추 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인해 도시숲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일상 속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와우생태공원 맞은편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은 다채로운 색감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벚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26종 6,779주의 나무를 선정했다.
관광과 연계해 나무를 심는 지역은 쾌적한 녹음을 제공하는 가로수(팽나무) 17주와 남천·후피향나무·돈나무·치자나무 등 8종류의 다양한 관목류 15,590주를 심고 입체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사인 해변공원 및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조화로우며 추후 추수하고, 특색 있는 가로숲길을 조성해 대표 관광자원으로 가치성을 확보하는 등 대상지별 특색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감재복 녹지과장은 "공원원과 가로숲길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통해 도시숲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도시 속 허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도시숲에서 많은 시민이 쉴 수 있도록 반려동물 목줄 매기, 쓰레기 가져가기 등 기본 에티켓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도시숲 1ha는 168kg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작은영화관, 판소리 테마 영화 '광대:소리꾼' 상영 18일 감독과의 대화 마련... 오늘부터 19일까지 1일 2회 상영

보성작은영화관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판소리 테마 영화인 '광대:소리꾼'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광대:소리꾼'을 제작한 조정래 감독은 한국 영화를 빛낸 스타상 감독상(2016), 춘사국제영화제 특별상 극영화부문(2021)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대:소리꾼'은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이며, 2020년 개봉된 작품이다. 보성작은영화관에서는 감독관을 재개봉한다. 감독관은 민초들의 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최초 기획 의도를 더 깊게 반영해 만들어졌다.
영화 '광대: 소리꾼'은 소리꾼 학규와 그의 딸 청이가 사라진 아내 간난을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광대패를 만들어 민초들의 흥과 한을 담은 소리로 희망을 찾아가는 영화다. 명창 이봉근을 비롯해 이우리, 김하연, 박철민, 김동원, 김민준 등이 출연했다.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1일 2회 상영할 계획이며, 관람료는 7,000원으로 예매는 보성작은영화관 전용 앱 '쁘띠시네'와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리의 고장인 보성에서 판소리 테마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많은 주민과 국악인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은 12일 동일면 덕흥리 현장에서 '덕흥지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귀군 고흥군수,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택),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덕흥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고흥군에서 직접 시행중인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약 53억원(국비 37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덕흥리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생활 SOC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물양장 설치, 부잔교 설치, 크레인 설치 등 여항시설과 계류시설의 보완, 확충 및 공동어구창고, 물양장 경관개선,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 및 주민교육과 지역수산물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덕흥리, 덕흥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고흥군은 12일 동일면 덕흥리 현장에서 '덕흥지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귀군 고흥군수,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택),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덕흥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고흥군에서 직접 시행중인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약 53억원(국비 37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덕흥리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생활 SOC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물양장 설치, 부잔교 설치, 크레인 설치 등 여항시설과 계류시설의 보완, 확충 및 공동어구창고, 물양장 경관개선,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 및 주민교육과 지역수산물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였다.
기동취재본부



힘내라 아랫장! 이겨내자 코로나! 순천시, 아랫장 장날 문화공연으로 활기 되찾는다

장날 문화공연 개최

순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위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아랫장 내 소규모 야외공연장에서 '전통시장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아랫장 장날에 맞춰 2·7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역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출연자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달고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특히, 공연 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공연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문화예술 공연 운영으로 아랫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재능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순천시 아랫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장날마다 즐겁게 즐기며 쇼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양손 가득 행복까지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순천 아랫장에서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반야케이드 설치, 야시장 재운영 등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군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